



조선경기 롤러코스터... 대불산단 위기냐 기회냐

고부가가치 선박, 첨단 기술로 승부해야 산다

**블록·의장 등 단순 임가공에만 투자 불황때 급속 붕괴
'DHMC' 방향타 국산화·'푸른중' 레저보트 성공 모델**

최근 6년 사이 조선(造船) 전문단지인 대불산단은 유례없는 호황과 불황을 동시에 겪었다. 2006~2008년 상반기까지 일감이 넘쳐 밤낮없이 공장을 돌렸다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며 물량이 폭 떨어지자 부도 도미노에 휩싸였다. 무리한 시설투자와 신규 진출이 가져온 후폭풍이라는 분석이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발목=대불산단의 위기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있다.

2006~2008년 상반기 조선업계는 최대의 호황을 맞았다. 넘쳐나는 물량에 블록 공장만 세우면 돈이 됐던 시절이다. 1997년 준공해 20~30%에 머물던 대불산단 분양률도 이 때(2008년) 100%에 도달, 정상가동 됐

다. 유례없는 호황은 자본과 시설을 조선업으로 불러들였고, 경영 노하우나 기술력이 필요치 않는 블록·의장 등 단순 임가공에 떠나있지 않았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가 입주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불산단 조선해양분야 사업다각화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입주업체 3곳 중 1곳(37%)은 호황때인 2006~2008년 생겨났다. 이들 중 73.8%는 조선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하지만 이들 업체엔 투자한 지 채 1년도 안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이 찾아왔고 수주물량은 급감했다. 일감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상당수 업체들의 시설투자는

무용지물이 됐고,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됐다. 불황은 또 선박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

다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수주물량은 3년간 유지되다보니 2008년 상반기 수주물량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버텼지만 이후 급속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2009년 1조 2217억원에서 지난해 1조9599억원으로 감소했다. 올들어 다소 회복해 1조 4211억원으로 늘어났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09년 123억원에서 2010년 107억, 올해 138억원으로 기대된다.

종사자 수는 6366명으로 업체당 평균 62명이다. 이 중 기능·생산직이 4884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평균 8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는 대형조선소에 편향돼 있다. 62.1%가 국내 대형조선소와 45.6%는 중형조선소와 거래하고 있다. 이

들 업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현 사업을 안정화하면서 신성장 진출(40.8%)에 목말라하고 있다.

◇특화기자재·사업다각화 절실=블록·의장 중심의 단순 임가공으로는 대불산단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조선업체의 합병과 특화전략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주석 산단공 대불지사 과장은 "현재의 블록 및 의장 중심의 업종은 경쟁력이 낮고 기업의 발전 가능성도 낮다"며 "고부가가치 특화기자재 및 신성장동력산업,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대삼호중공업은 단지 내 협력사인 'DHMC'에 기술지원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방향타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업체는 국내 대형조선소에서 178억원, 중국으로부터 32억원 등 총 21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레저보트산업 선도기업인 '푸른중

공업'도 2009년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카타마란 요트를 자체기술로 개발해 국내 최대 규모의 카타마란 62피트 세일링 요트제작에 성공했다.

'라온하제'도 세계 최초로 2인용 반잠수정을 개발해 지난 2월 미국 마이애미 국제보트쇼에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대형조선소에 종속됨에 따라 판로개척이 어렵고 신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인력 확보 등에 따른 신규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블록생산업체 유일의 유인숙 사장은 "대형조선소의 수주물량이 소진되는 앞으로 2~3년 뒤가 대불산단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사업다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자금 부족뿐만 아니라 리스크 부담이 커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6년새 유례없는 호황과 불황을 겪으며 대불산단 조선 업체들이 구조 조정에 휘말려 있다. 전문기술은 단순 임가공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19일 오후 산단 내 한 블록업체 근로자가 산소 절단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MB, 7차례 개각 지역 편중 심했다

영남권 대거 발탁, 호남권 인사들은 갈수록 낮아

이명박 정부 들어 7차례 개각서 영남권 인사가 대거 발탁된데 반해 호남권 인사들은 갈수록 비중이 낮아

지는 등 특정지역 편중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19일 국

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시행한 7차례 개각에서 특정지역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으로 집계돼 화두로 꺼낸 '공정사회'가 무용지물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구성된 장관급 이상의 인사내용은 출신지별로 영남권 30.8%, 서울·충청권·호남권 각각 15.4%, 강원·제주·이북을 포함한 기타지역 23.1%, 인천·경기권 0%였다.

그러나 영남권의 경우 1차 개각 때(2008년 7월7일) 34.6%, 2차 개각 때(2009년 1월19일) 38.5%, 3차 개각 때(2009년 9월3일) 40.7%로 급증하는 등 7차례 개각 동안 30%대 초반에서 후반을 꾸준히 기록했다.

반면, 인천·경기권은 출범 때 전혀 없는 상태에서 1년 반이 지난 3차 개각 때 처음으로 1명이 입각한 뒤 10%대 안팎을 차지했다.

호남권의 경우 3차 개각 때 25.9%로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4차 개각 때(2010년 8월8일) 20.2%, 5차 개각 때(2010년 12월31일) 18.5%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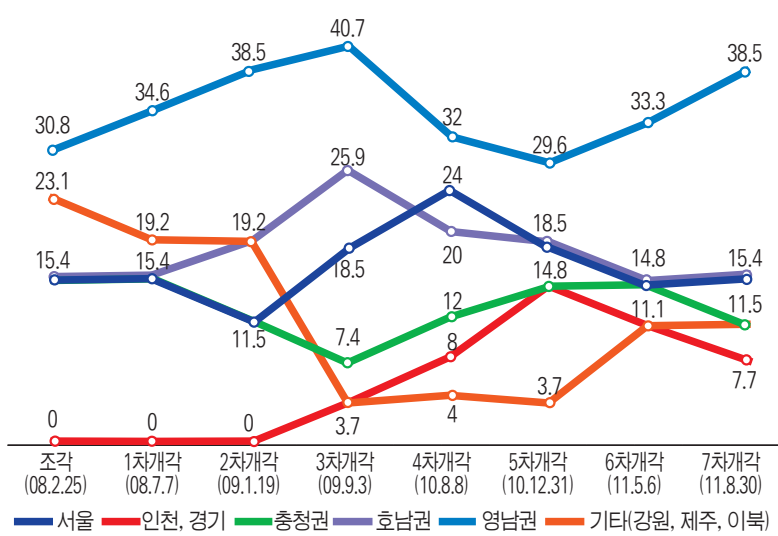
차관과 차·청장의 인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남권의 경우, 최저 32.5%에서 최고 36.8%를 차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가장 많았을 때가 출범 때와 1차 개각 때 각 3명으로 7.5%의 비율만 차지했을 뿐 나머지 개각 때에는 전혀 없거나 1~2명에 그쳤다. 호남권도 출범 때와 1차 개각 때 23.1%와 22.5%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개각에서는 10%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지역안배에 많은 노력을 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에 밝힌 '공정사회'란 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정부 개각시기별 장관급 이상 지역별 분포추이



빛의만평

- 김중두



18대 마지막 포성이 장난아니겠다

IAIS 2011
18th Annual Conference Seoul, Korea
ING생명(ING생명보험(주)의)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은퇴 후 꿈을 위한 준비

₩ 720,000,000

(월 생활비 300만원 20년 기준, 은퇴후 필요 평균금액/한국경제 2011.1.18)

은퇴 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키우는 금융능력, ING생명과 만나세요

새로운 취미생활, 여행, 건강건강까지
자유로운 은퇴생활을 위한 당신의 꿈
그 꿈이 무엇이든지
ING생명의 금융능력과 만나세요

꿈을 키우는 금융능력 - ING생명

외국계 생명보험사 국내 1위 (FY 2010 총 수입보험료 기준)
보험금 지급능력 5년 연속 AAA (한국기업평가, 2007~2011)

"꿈을 이루어 가는 즐거운 인생"
ING Dream Seminar

- 일장: 10월 6일(목) ~ 10월 17일(월)
- 장소: 전국 6개 도시 (청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지금 ING생명 홈페이지
(www.inglife.co.kr)에서 신청해 보세요

www.inglife.co.kr Call center 1588-5005